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여가자원과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이 미 연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여가자원과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가 자원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이용되는 금전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 기술적 가족자원 등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이용되는 총체적인 자원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가자원변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의 한 달 용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정보출처를 여가자원으로 설정하였다.

여가정체성은 여가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정체성을 여가정체성이라고 정의한다.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태, 속한 집단, 사회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주로 즐기는 여가유형, 여가정체성척도, 주관적 행복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의 종합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93명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ANOVA,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여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종교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종교가 없는 집단이 더욱 낮은 여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자원 변인 중에서는 한 달 용돈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더욱 많은 용돈을 받는 집단이 더욱 적은 용돈을 받는 집단보다 여가정체성이 더 높았다. 여가활동유형에 따라서 스포츠 활동, 교양 및 취미 활동을 즐기는 집단이 그 외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집단보다 여가 정체성이 더욱 높았다.

집에서 주로 하는 일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과 대화한다는 집단이 tv, 라디오, 컴퓨터, 인터넷을 주로 즐기거나 낮잠을 주로 자거나, 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주로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집단보다 여가정체성이 더욱 높았다.

여가방해요인도 여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로 여가활동을 방해 받는다고 한 집단은 그 밖에 비용이나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시간부족과 교통 불편 등으로 여가활동을 방해 받는 집단보다 더욱 낮은 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경제적 지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하류층집단이라고 응답한 학생들 보다 중상류층이라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정보출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여가정보를 얻는 집단이 그 외의 출처를 통해 여가정보를 얻는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수가 많은 경우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약한 편이다’ 라고 말한 집단이 ‘매우 건강하다’ 라고 말한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유형에 따라서는 적극적 활동유형인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집단이 관광, 교양 및 취미, 감상 및 관람의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방해요인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교통 불편, 건강문제로 여가활동을 방해받는 집단이 기타의 문제로 방해 받는다는 집단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집에서 주로 하는 일, 여가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 여가활동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여가자원과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여가활동 프로그램개발을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3
II. 이론적 배경 .....	5
1. 여가의 개념 .....	5
2. 여가자원과 여가활동유형 .....	8
(1) 여가자원 .....	8
(2) 여가활동유형 .....	10
3. 여가정체성의 개념과 선행연구 .....	12
4.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과 선행연구 .....	16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19
1. 연구모형 .....	19
2. 연구문제 .....	20
3. 용어의 정의 .....	22
IV. 연구방법 .....	22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	22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	24
3. 분석방법 .....	27
4. 연구의 제한점 .....	27
<b>V. 결과 및 해석 .....</b>	<b>28</b>
1.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 ..	28
2.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	33
3.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력 .....	38
<b>VI. 결론 및 논의 .....</b>	<b>41</b>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1> 변인별 신뢰도계수 및 평균값 .....	4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5
<표3>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 .....	28
<표4>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	33
<표5>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	38

## 그 립 목 차

<그림1> 연구모형 .....	19
------------------	----

# I. 서론

## 1. 문제제기

현대사회의 오염된 환경 및,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과중한 노동, 운동 부족과 같은 경험들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매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 및 삶의 새로운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점점 여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참여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

여가는 육체적 휴식과 정신적 휴식의 기능을 가지는데 현대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선행연구들은 여가활동은 인간 삶의 질적 향상과 자아실현 및 자기개발 그리고 건강 및 행복 추구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한다.(Murphy.1981; Iso-Ahola.1980; Tinsley. 1986) 그 밖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만들고,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도 공헌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가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가활동의 활용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식주가 생활의 주된 관심이 되어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여가활용이 인간생활의 한 중요한 측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여가시간이용을 위한 대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임변장,1993)

한편, 청년기는 이러한 여가활동을 가장 활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년기의 시기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고, 신체적 측면으로 보면 성장이 거의 끝난 성인과 다를 바가 없는 반면에 경제,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후기 혹은 성년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시기는 사회인이 되는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인간발달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 전기의 발달 과업인 부모로부터의 독립, 동료집단과 어울리기, 신체적 구조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지체시켜 왔으며 대학진학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들 속에서 새로이 부딪쳐야 하는 다양한 대인관계,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자기탐색, 대학졸업후의 진로, 대학에서의 학습과 학문탐구, 결혼을 위한 준비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적응하고 적응을 위한 갈등을 겪으면서 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성인들과 다른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김철, 1996)

일반인들은 대학생들의 생활이 공부 아니면 늘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부, 취업 등의 환경적 제약에서만 벗어나면 그 자체가 여가로 상징될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교에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다한 수업에서 오는 긴장된 생활을 경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은 대학진학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하는 노력에 있어서 더욱 많은 긴장감을 경험하게 한다. 대

학생들의 가장 활동적이어야 할 그들의 청소년 연령단계에서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의 소외를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대학생 시기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간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김동진(1993)은 대학생의 시기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준비와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는 욕구를 지닌 시기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욕구는 스스로 선택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여가의 사회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18~22 세의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별다른 사회적 생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가란 주된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지닌 자기표현을 위한 활동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연구되어졌다. (Iso-Ahola,1980) 따라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는 역할정체성인 ‘여가정체성’은 개인의 자아형성에서 독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여가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만족감과 기쁨이 크다면 여가정체성이 자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여가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똑같은 여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여가유형에 따른 주관적인 행복감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전북에 소재하는 종합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감

은 어떠한지를 조사,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입학 후에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 볼 때 즉 여가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가를 통해 얻는 경험은 전반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개개인이 선택된 여가활동유형은 각자의 독특한 여가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며 특히 생활에서 여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여가정체성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더욱 클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주관적 행복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여가연구는 여가산업분야에서 특정레저용품의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두어 행해진 것이거나 특정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장윤희, 1991), 성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활동변인에 따른 여가만족이나 생활만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졌으나 점차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기 직전의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가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연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련하는 대학의 행정가와 여가관련기관의 여가공급자들로 하여금 여가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대학생들의 여가프로그램이나 가족의 여가프로그램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감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여가의 개념

그 동안에 여가란 ‘자유로운 시간(free time)'휴식 또는 기분전환(relaxing)'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doing what you want)'이라고 이해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와 조건, 기능이 다양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가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관점 또한 다양하다.

Nash(1953)는 여가는 노동, 수면과 아울러 기타 필요한 활동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에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Kaplan(1960)은 여가는 일에서 해방된 시간, 자유시간, 나 자신의 시간, 자기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휴양 이라고 하였다.

여가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으로 여가를 일과 생존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학 사전(Dictionary of Sociology)에 의하면, “ 여가는 생활의 실제적 필요가 동반된 활동이 끝난 후의 자유 시간이며, 1일 24시간 중에서 일, 수면, 기타 필수적인 것에 바쳐진 시간을 제외한 시간(여유시간)” 으로 규정하고 있다(양광희, 2000에서 재인용)

Dumazedier(1967) 는 여가를 휴식, 오락, 자기개발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즉 여가란 현대인들에게 피로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오락 활동으로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게 하며, 자기개발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인격함양을 위한 기회를 갖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고전적 관점의 고대의 철학자 Aristotles로

부터 최근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자들인 Grazia(1962), Pieper(1963)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다. 그들 견해의 핵심은 여가를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나 정신상태로 바라보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받아들여지는 여가의 개념으로는, 여가를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Dumazedier(1967)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여가의 개념은 여가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가중이라고 판단하자는 주장이다. Dumazedier(1967)는 여가를 일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 또는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난 개인의 임의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여 여가의 활동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여가의 특징을 4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 것, 둘째는 이익이나 어떠한 이해로부터도 초월된 행동, 셋째는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한 상태로서의 추구행위, 넷째는 개인의 퍼스널리티 개화의 목적으로서 개인적 욕구활동 등으로 여가를 개념화하였다.

Dumazedier(1967)의 활동기능을 중시한 여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가란 개인이 직장과 가정, 사회로부터 맡겨진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전환을 하고 또한 이득과는 관계없는 지식과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참가,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해 완전 임의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이다”

Berger(1962)도 여가를 활동의 형태로 보고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하고 보상되는 일과 대조되는 것으로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Dumazedier(1967)는 여가의 기능의 하나인 자기개발을 강조하면서, “여가는 자기개발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기계적인 일상적 사고나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보다 폭넓고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에의 참가나 실무적

기술훈련 이상의 순수한 의미를 가진 육체, 감정, 이성의 도야를 가능케 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여가시간을 통해 자기 발전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정의하였다.

여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삶의 질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Iso-Ahola(1980), Tinsley(1986), Palmore(1968), Peppers(1975), De Carlo(1974), Graney(1975)등도 여가활동과 삶의 질 관계를 밝힌바 있다.

대학생과 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Aguiar-Gaxiolo(1984)는 1984년 Carter에 의한 자료를 이용해 139명의 대학원생(남 56명, 여83명)들의 인지된 삶의 질, 조정, 스트레스를 연구하였는데, 결과는 남녀 모두에게 여가의 적극적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여학생과 여가활동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김동진(1993),과 강경임(1991)이 있다.

김동진(1993)은 대학생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여가생활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강경임(1991)은 대학생들에게 여가의 가치와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권미화(1994)는 여가로 얻는 만족은 개인의 생활의 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의 여가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의 여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김세천(2001)의 정의에 따라서 “현대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때 타인으로부터 자유, 일에서의 자유, 가정에서의 자유, 사회적 구속(지위, 직책, 책임과 의무)에서의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휴식과 자아실현과 자아개발을 위한 나만의 자유로운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 2. 여가자원과 여가활동유형

### (1) 여가자원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반여건이 형성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따르게 된다. 여가 자원이란 여가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제반자원이 되는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의 자원이다. 반면에 여가활동 수행을 위한 제약조건을 여가장애(leisure barriers, leisure constrains)라고 하며, 여가장애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즉 내적, 외적자원의 부족(Francken & VanRaaij, 1981), 능력 장애(McGuire, 1984), 시간 장애, 비용 장애, 개인적 장애, 가족적 장애, 사회적 장애(김외숙, 1991) 등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Iso-Ahola와 Mannell(1985)은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능력이거나 적성, 태도 및 동기의 부족을 지각하는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규범과 역할, 의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금전이나 시간, 시설, 기회의 부족과 같이 여가활동참여에 실제적인 장애를 주는 요소를 물리적 요인으로 개념화 하였다. Belk(1975)는 여가참여유형의 차이는 여가활동 비용에서 기인된다고 보았다.

Crawford와 Godbey(1987)는 여가제약을 여가활동에 대한 적절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특정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경험 등 여가활동에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말하는 내적 제약,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대인적 제약, 가족생활주기, 시간, 비용, 기회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인 여가자원과 신체적인 건강수준, 개인적으로 여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또는 중요도 등을 여가선호 및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여가관련 조건들이 잘 갖추어질 때 궁극적으로 여가만족도와 행복감이 증대되어질 수 있다.(이두희, 박미석,1998)

본 연구에서는 한 달 용돈, 여가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친구를 알게 된 시기, 주관적 건강상태를 여가자원변인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대학생이 사용하는 한 달 용돈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경제적 지표가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은 소득수준으로 측정될 변수이지만, 대학생들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제적 측면이 불완전한 계층이기 때문에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는 용돈의 수준은 그들의 여가활동유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여가정보출처는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 개인의 활동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여가정보의 수준과 그 출처는 여가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여가활동에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은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인 친구관계에 따라서 여가활동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개인이 특정한 영역에 흥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그들이 가진 성격과 그들의 사회적 환경 및 여건과 각 개인의 생활양식의 특성은 그들의 여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 개인은 그들의 성격과 생활양식 및 사회 환경적 여건

에 따라서 그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선택한다고 연구결과들은 보고한다.(김기호,1999) 따라서 친구관계가 많은 대학생들과 친구관계가 적은 대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여가활동유형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 (2)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유형은 각 활동을 뚜렷하게 구분지어 주는 기준이 모호하여 학자마다 분류기준, 분류방법, 분류형태가 다양하다.

Iso-Ahola(1984)는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 활동, 사회활동, 공작활동으로 분류였고 Ediginton(1980)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범주 안에서 스포츠, 문화적, 사회적 활동으로서 참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여가유형에 관해 몇몇 학자들이 분류한 그 유형을 살펴보면 Mckechine(1974)는 여가활동을 조작적, 공작적, 지적, 생활적, 스포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작적(mechanincs)활동은 주로 손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자동차수리, 당구, 사냥 등을 말하며, 공작적(craft) 활동은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만드는 활동으로 요리, 의상, 디자인, 뜨개질 등을 말한다.

지적(intellectual)활동은 독서, 음악 감상, 영화감상 등을 말하고 일상적 활동은 정원 가꾸기, 일광욕, 친구 방문 등을 말한다. 스포츠 활동은 활발한 신체활동을 말하는데 배드민턴, 야구, 축구, 조깅, 양궁, 등산, 요트 등 동적 여가활동을 말한다.

Lutzin(1973)은 여가활동유형을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Randon과 Crandall, Fitgibhons(1977)은 여가활동을 활동유형에 따라서 스포츠, 문화적, 생산적, 지적활

동으로 분류하였다.

Orthmer(1975)는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무생물을 이용하는 병행활동,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 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김광득(1997)은 여가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스포츠 및 건강 활동, 취미 및 교양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 감상과 관람활동, 행락 및 관광활동이다.

여가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Ragheb 과 Griffith(198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은 차이가 있으며 스포츠 활동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만족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참가수준, 여가만족도, 가정과 건강 그리고 생활 조건과 같은 변인이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밝힌 결과 여가활동의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았고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적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했다. 국내의 연구는 김경태(1995)는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태도의 관계를 연구했고, 박시범(1993)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레저 활동 유형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강봉화, 김홍석(2000)은 여가활동 유형 중 생활체육활동 같은 능동적 여가가 수동적 여가보다 여가만족 또는 생활만족에 크게 기여 한다고 연구했다. 문용(1997)은 여가활동선호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모형을 연구했는데,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직업 만족도, 가족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바 있다. 박문환(1999)은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체육 참여의 관계모형을 기초로 해서 대학생의 여가동기, 태도 및 성격,

가치관과 관련해서 여가활동소비자행동차원의 연구를 했다.

임번장, 정영린(1995)의 연구에서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도의 관계에서도 여가활동유형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여가활동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여가동기 및 여가활동 내용에 따라서 여가활동유형을 분류한 김광득(1997), 조용하(1996)의 여가유형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김광득은 여가활동유형을 스포츠 및 건강 활동, 취미 및 교양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 감상과 관람활동, 행락 및 관광활동으로 분류하였다.

### 3. 여가정체성의 개념과 선행연구

여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며 개인은 일정한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과정에서 여가와 관련된 사회적 정체성인 여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Laverie, 1995) 즉 여가정체성이란 특정한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의 결과로 여가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형성되는 내면화된 역할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 가령, ‘축구팬’으로써의 여가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축구팬’의 한사람으로써 지각할 수 있으며 ‘축구팬’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충실하고자 할 것이다.

Erickson(1968)에 의해 주창된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정체성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의식으로 ‘나다움’에 대한 감성과 성향, 무의식 등의 심리적 상태(정준영, 1998)로서 개인의 주변과 그들의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형성된다.

정체성의 형성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가활동은 때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여가활동유형 중 스포츠 활동에 대해 정체성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주로 북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졌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스포츠 활동과 정체성 이론을 다룬 관련연구로는 김숙영, 원영신(1999), 임수원(1999)등의 연구가 있다.

여가정체성은 여가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으로서 개인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같은 스포츠 센터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설의 같은 코치로부터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그로인해 받게 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적, 인지적 경험은 다르게 나타난다. 헬스를 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경험이 만족스러웠다면 각 개인의 헬스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될 것이다. 이렇게 여가활동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된 ‘여가만족감’은 각 개인의 전체적인 자아형성에서 독특하고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여가정체성”이 개인의 전체적인 자아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면 개인은 그 여가활동에 더 욱 많은 애정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각각의 여가유형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여가정체성은 다르게 나타 날것이다.

여가정체성은 특히 ‘적극적 여가(serious leisure)’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 질 수 있다. 참여자들이 그 활동에 높은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지식 및 경험을 습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는 활동,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의 체계적인 추구를 적극적 여가라 한다(Stebbins,1992)

Shamir(1992)는 여가정체성이 사람들의 자아개념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했다. 즉 여가정체성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표현하고 확인

시켜주며,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고, 중심가치와 흥미를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가활동에 관련된 노력과 기술, 시간투자 및 향후 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Iso-Ahola, Graefe 및 La Verde(1989)는 적극적 여가에 속하는 모험여가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기술의 향상에 대한 지각이 여가참여의 결과로써 자아 존중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청소년 재즈밴드에 대한 소녀들의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가활동 중의 기술개발의 경험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며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Grieves, 1989).

보통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높은 상황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을 자신을 대표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가활동처럼 자유롭게 수행되는 행동을 통해 개인은 더 많은 재량권과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자에 가까운 정체성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Haggard & Williams, 1992).

여가는 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이며, 개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을 자신을 대표하는 행동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은 개인의 전체적인 자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중요한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소속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한다. 여가정체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형성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정서적 애착이 더욱 두드러진다. Argyle(1996)은 여가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개인들은 보다 강력하고 정서적으로 흥미를 끄는 애착을 통해 정체성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여가활동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여가정체성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여가활동참여가 개인의 생활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가정은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고 있다.(Coleman,1993; Schreyer & Dirver,1989)

특히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수행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활동이 없었던 만큼 대학입학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생활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매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여가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가를 통해 얻는 경험은 전반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청년기라는 발달과정에 속하며, 청년기에는 자아정체감(identity)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의 여가정체성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평생여가생활의 형태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때의 선택된 여가활동유형으로 형성되는 여가정체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박유진(2002)이 사용한 여가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유진은 callero(1985)와 Laverie(1995)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4개의 문항을 번안하고 여가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존중감 및 여가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위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4.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과 선행연구

주관적 행복감이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Morale Support),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Larson(1979)에 의해 제창된 개념이다. 사기란 용기, 확신, 의욕 그리고 어려움을 기꺼이 참아내는 정신적인 상태이며, 생활만족도란 장기간동안 삶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현재의 상태 혹은 바라던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의 평가를 의미하며 행복은 현 상태에 대한 유쾌함의 일시적인 기분을 의미한다.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인정한 기준에 바탕 해서, 주관적으로 “좋다”고 평가,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타인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행복감과는 다른 개념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Diener, 1984)

첫 번째 유형은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성립된다는 차원으로, 행복은 주관적 심리상태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속성 및 환경적 조건을 소유한 삶이라는 측면이다. 외적 기준은 소득, 교육수준,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의 사회, 경제적 지표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 비교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외적 기준들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일 뿐이며,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또한 Veenhoven(1984)은 주관적 행복감은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지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이 자신의 삶과 개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평가를 중시하는 측면이며, Shin과 Johnson(1978)은 행복을 ‘자신

이 선택한 기준에 근거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삶의 질' 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이다. 또한 이런 주관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판단하는 입장은 근대에 들어와서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왔다.

세 번째 유형은 주관적 행복감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Bradburn, 1969)

한편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Emmons, 1992)에서 능력발현수준과 신체적,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는 유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강력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생활만족은 정서적인 복지보다 자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 물질적 자원보다 더욱더 주관적 행복감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Diener(1995)는 사회적 자원과 주관적 행복감으로서의 생활만족은 정적정서와 부정 정서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가진 목표와 자원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이 자신이 가진 목표와 자원에 따라 개인이 사회적 활동이나 인격적 요인과 같은 자원이 문화적, 물질적 자원보다 더 유의하게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로서 류연지(1996)는 욕구충족(Maslow, 1954)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자신이 지각하는 마음상태가 외적인 스트레스보다 주관적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이주은, 1995)하고 있으며, 또한 최경희(1995)는 사회인구학적변인 외에도 욕구만족 변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욕구만족 변인 중에서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bby 와 Andrews(1985)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스트레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 타인에 의한 통제감, 사회적 지지, 수행정도, 이들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우울, 불안 이라고 제시하였다. Lawton(1983)은 주관적 행복감은 적어도 4개 이상의 영역 을 지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생활만족을 의미하는 일치, 행복, 긍정적, 부정적 정서는 정서적인 영역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만족, 행복, 정서, 사기 등과 같은 개념들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소가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Lawton,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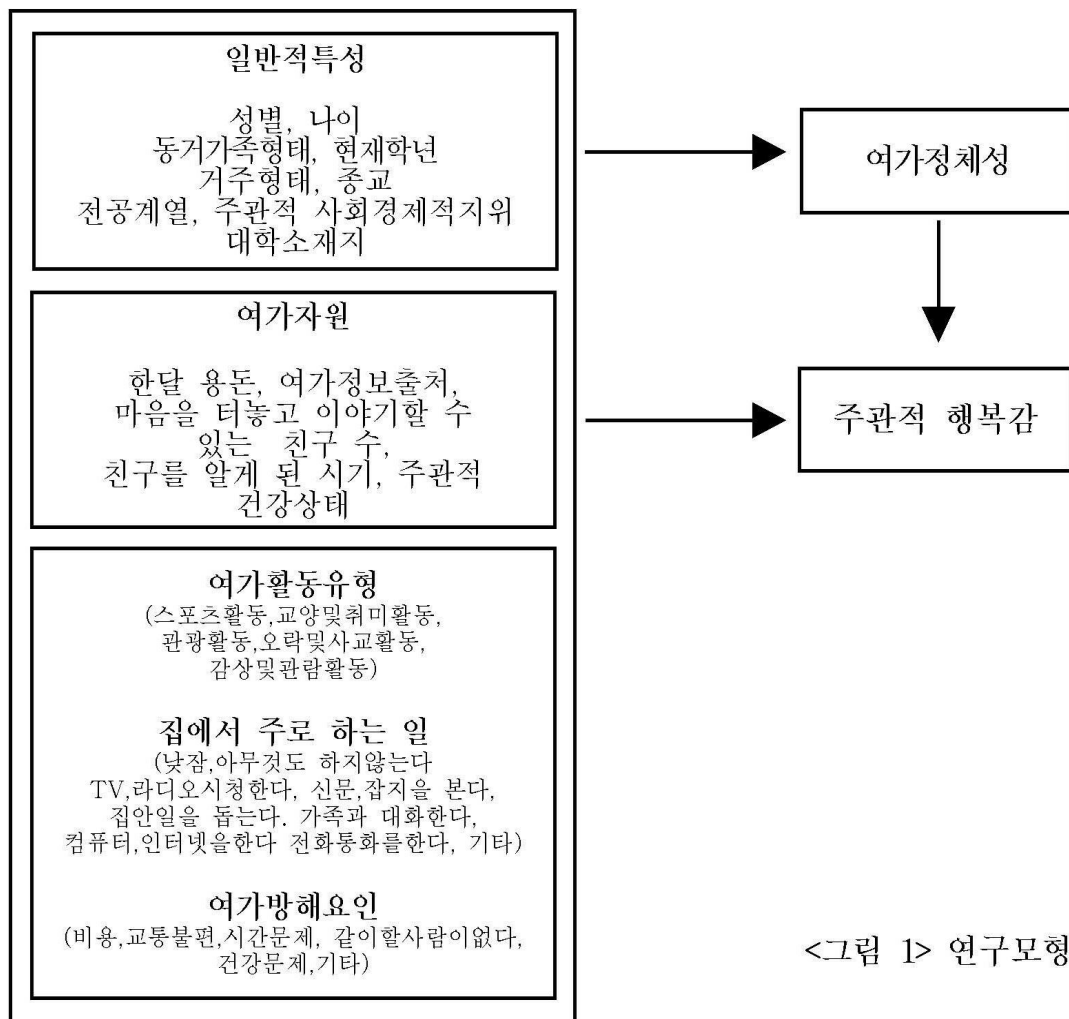
주관적 행복감의 척도로는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1961)의 Life Satisfaction Index와 Lawton(1975)의 P.G.C. morale scal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이하 P.G.C. morale scale로 함)이 가장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Lawton(1975)이 개발하고 마에다(1979)와 김영우(1988)가 사용한 P.G.C. morale scale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 수는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5단계 척도로 구성하였다.

###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하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 되었다.

### (1) 여가자원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들로 물리적인 여가자원, 개인적으로 여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또는 중요도 등을 여가 자원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만이 갖는 여가자원으로 한 달 용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를 알게 된 시기, 여가정보출처를 여가자원으로 설정하였다.

### (2)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구체적 형태로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

는 여가활동으로, 김광득(1997), 조용하(1996)의 여가유형인 스포츠 및 건강 활동, 취미 및 교양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 감상과 관람활동, 행사 및 관광활동으로 분류하였다.

### (3) 여가정체성

여가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정체성을 여가정체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여가정체성이 대학생들의 자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가정체성의 높고, 낮음으로 명시한다.

### (4) 주관적 행복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인정한 기준에 바탕해서 주관적으로 “좋다”고 평가, 판단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IV.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9문항)과 여가자원에 관한 문항(5문항),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문항(3문항), 그리고 여가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21문항), 주관적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구성내용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동거가족형태, 현재학년, 거주형태, 종교, 전공계열,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대학소재지	9 문항
여가자원	한달용돈, 여가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있는 친구수, 친구를알게된시기, 주관적건강상태	5문항
여가활동유형	<p>여가활동유형 (스포츠활동, 교양및취미활동, 관광활동, 오락및사교활동, 감상및관람활동),</p> <p>집에서 주로 하는일 (낮잠, 아무것도 하지않는다, TV라디오시청한다, 신문잡지를 본다, 집안일을 돕는다, 가족과 대화한다, 컴퓨터, 인터넷을한다, 전화통화를한다.기타),</p> <p>여가방해요인 (비용, 교통불편, 시간문제, 같이할사람이없다, 건강문제, 기타)</p>	3문항
여가정체성		21문항
주관적행복감		12문항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성별, 나이, 동거가족형태, 현재학년, 거주형태, 종교, 전공계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대학소재지 등 9개 문항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 2) 여가정체성 척도

여가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박유진(2002)이 사용한 여가정체성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유진은 개인이 형성한 여가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Callero(1985)와 Laverie(1995)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4개의 문항을 변안했고 여가정체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인 여가집단에 대한 동일시(자신을 전형적인 집단구성원으로 지각하는 정도)와 존중감 (집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 및 여가집단에 대해 정서적 애착(집단에 대해 정서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정도)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모두 21개의 문항으로 새로 만들었다.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주어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정체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여가정체성 문항의 신뢰도는 0.86수준이었다.

### 3) 주관적 행복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Lawton(1975)이 개발하고 마에다(1979)와 김영우(1988)가 사용한 P.G.C. morale scale 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 수는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5단계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혀 아니다”에 5점, “매우 그렇

다” 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0.62 로 나타났다.

<표 1> 변인별 신뢰도 계수 및 평균값

종류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
여가정 체성	21문항	21 ~ 105점	0.86
주관적 행복감	12문항	12 ~ 60점	0.62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성별, 나이, 동거가족형태, 현재학년, 거주형태, 종교, 전공계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대학소재지 등 9개 문항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5월 1-9일 까지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의 종합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에 의해서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조사요원과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와 부실하게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193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분류	N(%)	변수	분류	N(%)
성별	남	72(37.3)	대학소재지	서울	98(50.8)
	여	121(62.7)		지방	95(49.2)
동거가족형태	부모, 자녀	137(71.0)	종교	기독교	68(35.2)
	부모, 조부모, 자녀	18(9.3)		불교	31(16.1)
	혼자	31(16.1)		종교없음	80(41.5)
	기타	7(3.6)		기타	14(7.3)
현재학년	1학년	91(47.2)	나이	18-19세	79(40.9)
	2학년	44(22.8)		20-21세	74(38.3)
	3학년	30(15.5)		22-25세	29(15.0)
	4학년	28(14.5)		25이상	10(5.2)
거주형태	자기집	100(51.8)	전공계열	인문	63(32.1)
	친척집	2(1.0)		사회, 경영	79(40.9)
	기숙사	40(20.7)		자연, 공과	7(3.6)
	하숙	7(3.6)		가정, 생활	8(4.1)
	자취	44(22.8)		예체능	36(18.7)
주관적사회 경제적지위	중하류층	46(23.8)			
	중상류층	147(76.2)			
합계		193(100.0)	합계		193(100.0)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는 37.3%, 여자는 62.7%로 나타났다. 동거가족형태는 “부모, 자녀와 산다” 는 71%, “부모, 조부모, 자녀와 산다” 는 9.3%, “혼자산다” 는 16.1%, 기타 3.6%로 부모, 자녀의 동거형태가 가장 높았다. 현재학년은 1학년이 47.2%, 2학년이 22.8%, 3학년이 15.5%, 4학년이 14.5%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51.8%, 자취하는 경우 22.8%, 기숙사거주 20.7%, 하숙 3.6%, 친척집 1.0%로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류층과 중상류층의 집단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한 결과 하류층은 23.8%, 중류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76.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대학소재지는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50.8%, 지방소재 대학생은 49.2%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5.2%로 가장 높았고, 종교없음 41.5%, 불교가 16.1%, 기타의 종교 7.3%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보자면 종교가 있는 경우는 58.5%로, 종교 없음이 41.5%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이는 만 18-19세가 40.9%로 가장 높았고, 만 20-21세가 38.3%, 만 22-25세가 15.0%, 만 25이상은 5.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1학년이 47.2%를 차지하여 만 18-19세에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32.1%, 사회, 경영 계열이 40.9%, 예체능이 18.7%, 가정, 생활계열이 4.1%, 자연, 공과는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학신입생인 1학년이 가장 많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지위도 중상류층의 비율을 보면 76.2%를 차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거주형태도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기숙사, 자취, 하숙의 비율도 각각 51.8%와 47.1%로 절반의 비율씩 속함을 알 수 있다. 서울과 지방의 대학소재지는 약 50%씩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41.5%만 종교가 없고 나머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인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와 <연구문제 2>인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조사도구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의 종합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대표성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연구 결과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질문지 자기보고식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자기지각에 한정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 이외의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V. 결과 및 해석

### 1.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

<연구문제 1>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는 다음<표 3>과 같다.

<표3>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

변인	여가정체성			
	분류	M	SD	D
성별	남(72)	3.15	.65	
	여(121)	3.03	.65	
	t값	1.266		
나이	만18-19세(79)	3.02	.67	
	만20-21(74)	3.09	.63	
	만22-25(29)	3.19	.68	
	만25이상(10)	3.04	.61	
	F값	.457		

동거가족형태	부모, 자녀(137)	3.06	.61	
	부모, 조부모, 자녀(18)	3.21	.60	
	혼자(31)	3.04	.82	
	기타(7)	3.27	.73	
	F값	.519		
현재학년	1학년(91)	3.06	.69	
	2학년(44)	3.06	.56	
	3학년(30)	3.20	.73	
	4학년(28)	3.01	.57	
	F값	.444		
거주형태	자기집(100)	3.08	.61	
	친척집(2)	3.21	.03367	
	기숙사(40)	3.07	.73	
	하숙(7)	3.02	1.08	
	자취(44)	3.08	.61	
F값	0.034			
종교	기독교(68)	2.99	.66	A
	종교없음(80)	3.00	.65	A
	기타(14)	3.19	.52	AB
	불교(31)	3.39	.59	B
	F값	3.41*		
전공계열	인문(63)	3.03	.67	
	사회, 경영(79)	3.12	.55	
	자연, 공과(7)	3.17	.47	
	가정, 생활(8)	3.01	.65	
	예체능(36)	3.06	.83	
F값	0.21			
주관적사회 경제적지위	중하류층(46)	2.94	.63	
	중상류층(147)	3.12	.65	
	t값	-1.647		
대학소재지	서울(98)	3.09	.52	
	지방(95)	3.06	.76	
	t값	.34		

한달 용돈	10만원-20만원(55)	2.87	.65	A
	30만원-40만원(78)	3.10	.65	AB
	20만원-30만원(15)	3.14	.52	AB
	40만원-50만원(45)	3.25	.63	B
	F값	3.10*		
여가정보출처	인터넷(108)	3.05	.65	
	그 외의출처(85)	3.11	.64	
	t값	0.54		
친구를 알게된시기	초등학교때(43)	3.06	.65	
	중학교때(42)	3.10	.57	
	고등학교때(79)	3.09	.61	
	대학교때(26)	3.04	.86	
	여가활동때(3)	2.76	1.04	
	F 값	0.22		
주관적 건강상태	허약(10)	3.21	.37	
	약한편(14)	2.79	.86	
	보통(47)	3.01	.68	
	양호(84)	3.11	.62	
	매우건강(38)	3.07	.65	
	F값	1.03		
여가활동유형	스포츠(37)	3.30	.67	
	교양 및 취미(16)	3.41	.42	
	관광(5)	2.95	1.00	
	오락 및 사교(70)	2.98	.65	
	감상 및 관람(65)	2.97	.61	
	F 값	3.18*		
집에서 주로 하는일	tv,라디오(47)	2.98	.57	A
	컴퓨터, 인터넷(80)	3.03	.63	A
	낮잠, 아무것도하지않는다(26)	3.03	.73	A
	신문,잡지(7)	3.04	.59	A
	집안일(5)	3.24	.23	AB
	전화통화(6)	3.53	.52	AB
	가족과 대화(13)	3.66	.52	B
	F값	2.87*		

여가 방해요인	건강문제(2)	1.88	.84	A
	비용(82)	2.94	.68	B
	같이할 사람이 없다(15)	2.95	.36	B
	기타(10)	3.17	.80	B
	시간부족(74)	3.24	.57	B
	교통불편(10)	3.25	.75	B
	F 값	3.51**		
마음을터놓 고이야기할 수있는친구 수	전혀없다(4)	3.02	.19	
	적은편(38)	2.92	.58	
	보통(116)	3.07	.68	
	많은편(32)	3.27	.62	
	아주많다(3)	3.11	.93	
F값	1.19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종교, 한 달 용돈, 여가활동유형, 집에서 주로 하는 일, 여가방해요인이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 종교 없음의 집단과 불교의 집단 간에 여가정체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독교, 종교 없음의 집단이 불교의 집단보다 여가정체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에 따라서는 10만원-20만원의 용돈을 받는 집단과 40만원-50만원의 용돈을 받는 집단 간에는 여가정체성에 차이를 보였는데, 즉 10만원-20만원의 용돈을 받는 집단이 40만원-50만원의 용돈을 받는 집단보다 여가정체성에 있어 더 낮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유형에 따라서는 여가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스포츠 활동, 교양 및 취미활동을 즐기는 집단이 그 외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집단보다 여가정체성이 더 높았다.

스포츠활동, 교양 및 취미활동의 여가유형은 적극적인 여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여가유형인 스포츠를 즐기거나 관전하는 집단이 스포츠에 높은 몰입과 정서적 애착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연관 지어 해석할 때(Wann&Branscombe, 1995) 이 적극적 여가를 즐기므로서 여가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에서 주로 하는 일에 따라서는 여가정체성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tv,라디오를 듣는다, 컴퓨터, 인터넷을 한다, 낮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신문, 잡지를 본다는 집단과 가족과 대화한다는 집단 간에 여가정체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과 대화한다는 집단이 tv,라디오를 듣는다, 컴퓨터, 인터넷을 한다, 낮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신문, 잡지를 본다는 집단 보다 여가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가방해요인에 따라서도 여가정체성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건강문제로 방해를 받는 집단과 비용,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시간 부족, 교통 불편, 기타로 방해를 받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건강문제로 방해를 받는 집단이 여가정체성에 있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종교, 한 달 용돈, 여가활동유형, 집에서 주로 하는 일, 여가방해요인이 여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종교가 불교 일 때, 용돈을 대체로 많이 받는 집단 일 때, 스포츠 활동, 교양 및 취미활동을 즐길 때,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할 때 여가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문제로 여가활동에 방해를 받을수록 여가정체성이 낮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유형 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다른 종류의 여가활동유형의 참가자들보다 여가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스포츠 활동은 경쟁 지향적이며, 신체활동을

수만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빈번하고, 기록에 대한 도전이나 자신이 세운 기준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으로 생각해보면 스포츠 활동으로 얻어지는 인지적, 행동적 경험이 다른 종류의 여가활동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그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여가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2.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연구문제2>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다음<표 4>과 같다.

<표4>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배경변인(N)		주관적행복감		
		M	SD	D
성별	남(72)	3.34	.74	
	여(121)	3.20	.57	
t 값		1.43		
나이	만18-19세(79)	3.30	.63	
	만20-21세(74)	3.17	.52	
	만22-25(29)	3.30	.93	
	만 25이상(10)	3.35	.55	
F값		.69		

동거가족형태	부모,자녀(137)	3.25	.68	
	부모,조부모,자녀(18)	3.23	.54	
	혼자(31)	3.20	.48	
	기타(7)	3.60	.56	
	F값		.77	
현재학년	1학년(91)	3.35	.60	
	2학년(44)	3.21	.82	
	3학년(30)	3.19	.50	
	4학년(28)	3.08	.50	
	F값		1.55	
거주형태	자기집(100)	3.24	.58	
	친척집(2)	2.75	.23	
	기숙사(40)	3.45	.85	
	하숙(7)	3.10	.50	
	자취(44)	3.15	.53	
	F값		1.69	
종교	기독교(68)	3.26	.57	
	불교(31)	3.27	.23	
	종교없음(80)	3.23	.59	
	기타(14)	3.32	1.24	
	F 값		0.08	
전공계열	인문(63)	3.14	.75	
	사회,경영(79)	3.31	.56	
	자연,공과(7)	3.02	.47	
	가정,생활(8)	3.07	.46	
	예체능(36)	3.41	.60	
	F값		1.697	
주관적사회 경제적지위	중하류층(46)	3.04	.51	
	중상류층(147)	3.32	.66	
	t 값		-2.641**	
대학소재지	서울(98)	3.27	.54	
	지방(95)	3.23	.73	
	t값		.41	

한달용돈	10만원-20만원(55)	3.24	.81	
	20만원-30만원(15)	3.13	.42	
	30만원-40만원(78)	3.30	.62	
	40만원-50만원(45)	3.23	.46	
	F 값		.35	
여가정보출처	인터넷(108)	3.36	.55	
	그 외의출처(85)	3.12	.68	
	t값		0.30*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수 있는 친구수	전혀없다(4)	2.85	.29	
	적은편(38)	2.88	.46	
	보통(116)	3.34	.69	
	많은편(320)	3.47	.49	
	아주많다(3)	2.97	.20	
	F 값		5.58***	
친구를 알게된 시기	초등학교때(43)	3.46	.83	
	중학교때(42)	3.13	.48	
	고등학교때(79)	3.18	.52	
	대학교때(26)	3.31	.78	
	여가활동때(3)	3.47	.42	
	F 값		1.99	
주관적건강상태	약한편(14)	2.76	.43	A
	허약(10)	2.95	.72	AB
	보통(47)	3.20	.55	BC
	양호(84)	3.32	.67	BC
	매우건강(38)	3.42	.61	C
	F값		3.80**	
여가활동유형	관광(5)	2.93	.27	A
	교양 및 취미(16)	2.98	.52	A
	감상 및 관람(65)	3.04	.45	A
	오락 및 사교(70)	3.37	.58	AB
	스포츠(37)	3.56	.88	B
	F 값		6.21***	

집에서 주로 하는일	낮잠,아무것도안한다(26)	3.17	.64	
	tv,라디오(47)	3.14	.50	
	신문,잡지(7)	3.03	.41	
	집안일(5)	3.35	.81	
	가족과 대화(13)	3.43	.62	
	컴퓨터,인터넷(80)	3.30	.73	
	전화통화(6)	3.34	.43	
	기타(9)	3.50	.58	
	F 값	0.77		
여가방해 요인	건강문제(2)	3.00	.47	A
	같이할 사람이 없다(15)	3.01	.47	A
	교통불편(10)	3.04	.64	A
	비용(82)	3.20	.56	AB
	시간문제(74)	3.33	.73	AB
	기타(10)	3.75	.52	B
		F 값	2.33*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여가정보출처,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활동유형, 여가방해요인이었다.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의 경우 중상류층의 집단이 중하류층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 여가정보출처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한 집단이 그 외의 출처를 통한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

친구 수에 따라서는 친구가 많은 편인 집단이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이는 친구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약한편이다 라고 응답한 집단과 매우건강하다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여가활동유형에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광, 교양 및 취미, 감상 및 관람의 집단과 스포츠 활동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즉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집단이 관광, 교양 및 취미, 감상 및 관람의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 여가방해의 요인에 따라서는 건강문제,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교통 불편의 집단과 기타라고 답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해보면 대학생들의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여가 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건강 상태, 여가 활동유형, 여가방해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중상류층 집단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여가 정보를 얻을수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집단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의 참여자가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타인들과 함께 협동적인 관계와 경쟁적인 관계를 맺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예절, 협동, 경쟁, 스포츠맨십 등의 기본원리를 직접 배우고 내면화함으로써 타인과 상호 협조, 책임성, 자율성, 성취성, 활동성, 사교성 등의 가치를 발달시킨다.(김동진,1988)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해볼 때 스포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페어플레이를 하고, 경기의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등의 과정을 얻게 됨으로서 그것이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의 여가유형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 3.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3>인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모델1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집에서 주로 하는 일, 여가방해요인, 여가정보출처, 한 달 용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여가활동유형을 추가한 모델 2, 여가정체성을 추가한 모델 3이다.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5> 와 같다.

<표 5> 일반적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주관적사회경제적지위	.282	.188*	.233	.155*	.237	.157*
종교	.001464	.001	-.0449	-.034	-.0423	-.032
건강상태			.09120	.058	.09435	.060
집에서주로하는일			.307	.118	.387	.149*
여가방해요인			.04914	.008	.185	.030
여가정보출처			.299	.231**	.298	.230**
한달용돈			-.0608	-.107	-.0473	-.083
마음을터놓고 이야기할수있는친구수			.181	.200**	-.188	.208**
여가활동유형			.395	.239**	.412	.249**

여가정체성					-.120	-.118
intercept		2.761		2.154		2.317
F값		3.468*		4.517***		4.341***
R2값		.035		.189		.201
R2증가량				.154		.01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중하류층 0, 중상류층 1

종교> 종교없음 0, 종교있음1

건강상태> 매우건강하다 0, 허약보통 1

집에서 주로하는일> 가족과대화 1, 그 외 0

여가방해요인> 건강문제 1. 그 외 0

여가정보출처> 인터넷 1, 그 외 0

여가활동유형> 스포츠 1, 그 외 0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모델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이 3.5%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beta=.188$ ,  $p < .05$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지위가 높을 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집에서 주로 하는 일, 여가 방해 요인, 여가 정보 출처, 한 달 용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여가활동유형을 추가하였는데, 설명력이 18.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5.4%의 증가를 보였으며, 여가활동유형( $\beta=.239$ ,  $p < .05$ ), 여가정보출처( $\beta=.231$ ,  $p < .05$ ),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 $\beta=.200$ ,  $p < .05$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beta=.155$ ,  $p < .05$ ) 순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활동을 하는 대학생일수록, 여가정보출처가 인터넷을 통해 여가정보를 얻는 집단일수록, 친구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사회지위가 중상류층 집단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가정체성을 추가한 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20.1%로 전체적으로 1.2%증가를 보였으며, 여가활동유형( $\beta=.249$ ,  $p < .01$ ), 여가정보출처( $\beta=.230$ ,  $p < .01$ ),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 $\beta=.208$ ,  $p < .01$ ), 주관적 사회 경제적지위 ( $\beta=.157$ ,  $p < .05$ ), 집에서 주로 하는 일( $\beta=.149$ ,  $p < .05$ )이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의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 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여가정보를 얻는 집단일수록, 친구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사회지위가 중상류층인 집단일수록,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하는 집단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체적 변수 중 여가활동유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여가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 및 연구결과의 실천적 적용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여가자원과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의 종합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193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t-검증, ANOVA,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들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종교, 한 달 용돈, 여가활동유형, 집에서 주로 하는 일, 여가방해요인의 변인들에 따라 여가정체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를 봤을 때, 기독교와 기타의 종교가 여가정체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정체감이 매우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 등의 장소에 방문하여 기도를 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 공부, 스스로 자선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띠는 행동을 한다.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행함으로써 자유시간에 여가활동이 아닌 종교적 활동에 더욱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가활동을 적

게 경험하는 만큼 형성되는 여가정체성도 낮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 달 용돈은 40만원-50만원의 경우가 여가정체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한 달 용돈에 따라 여가를 즐기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 지게 됨으로 한 달 용돈이 대학생들의 여가자원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여가 활동 시 소요되는 교통비, 참가비, 준비비 등의 경제적상황이 좋은 40만원-50만원의 집단이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10만원-20만원의 집단보다 다양하고 많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결과 여가정체성이 더욱 높게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이 여가시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가정 경제학자와 가정 경제학자들(Gronau, 1976; Hiatt & Godwin, 1990)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대학생의 소득을 한 달 용돈으로 가정한다면 소득은 여가생활 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참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이정연(199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가활동유형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 교양 및 취미활동을 즐기는 대학생들이 여가정체성이 높았다. 임변장, 정영린(1995)와 정영린, 이홍구(1996)의 연구는 여가에 대한 하위요인별 여가만족에서 스포츠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가족과의 대화를 하는 대학생이 여가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관계에서 불화, 갈등과 적대감 없이 가정생활에서 정신적으로 흡족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갖게 되어 여가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족과

의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게 되어, 그 효과로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형성되어 여가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여가활동유형이 아닌 단지 시간을 때우는 소일중의 하나인 소극적 유형의 여가활동은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여가방해요인으로서는 건강문제로 여가활동을 방해 받는다고 한 집단은 그 밖에 비용이나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시간부족과 교통 불편 등으로 여가활동을 방해 받는 집단보다 여가정체성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여가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원형중, 1994)를 바탕으로 볼 때, 건강문제로 여가활동에 방해를 받는 집단은 여가만족이 낮아 그로인해 긍정적인 여가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연구문제2> 인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여가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활동유형, 여가방해요인이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류층 집단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중상류층의 집단이라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높았다. 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들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Dew&Huebner, 1994, 조원호, 1997)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아져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정보출처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 여가정보를 얻는 집단이 그 외의

출처를 통해 여가정보를 얻는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여가정보를 얻는 집단은 자신이 컴퓨터를 다루어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형태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인터넷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주관적 행복감이 그 외 다른 여가정보출처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여가정보는 다른 정보원보다 다양하며 자신이 필요한 구체적인 여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여가정보를 찾기 위해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는 노력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가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얻는 자기만족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음으로 해석된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수가 많은 집단이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가 전혀 없다고 한 경우에 주관적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주된 사회관계는 친구관계라고 볼 수 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아서 친구 간에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약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객관적인 건강상태보다 자기보고식(Self-report)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생활만족에 더 중요한 결정인자라는 선행연구(Medley, 1976)와 주관적인 건강정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변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Witter, 1984)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오락 및 사교활동, 감상 및 관람, 교양 및 취미, 관광활동 의 순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능동적인 여가참여는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Iso-Ahola, 1980; Campbell, 1979; Decarlo, 1974)의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해석하여 볼 때, 능동적인 여가유형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eppers(1995)의 연구에서도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의 참가자들이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며 비활동적이고 고립된 활동의 참가자는 생활만족이 낮게 나타나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공통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감 두 부문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대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느낌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so-Ahola(1980)는 능동적 여가가 수동적 여가보다 생활만족에 기여도가 큰 이유를 활동의 내적 동기와 최적 각성수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즉 여가활동이 최적으로 각성될 때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최상이 되며 여가활동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최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만족도가 여가정체성과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가 활동방해요인에 따라서는 비용이나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시간부족과 교통 불편, 건강 문제 등으로 여가활동을 방해 받는 집단보다 기타

의 응답자가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기타의 의견을 답한 사람은 비용, 시간, 건강, 교통, 같이 할 사람이 없다 를 제외한 여가방해요인을 가진 집단으로 가정되므로 여가 활동 시 필요한 기본적 여가자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여가 활동 시 필요한 기본적 여가자원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나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시간부족과 교통 불편 등으로 여가활동을 방해 받는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3>인 일반적 특성, 여가자원, 여가활동유형,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유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집에서 주로 하는 일순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가정체성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학생들이 스포츠 유형의 여가활동을 할수록 인터넷을 많이 이용 하는 대학생일수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수가 많을수록, 중상류층일수록, 집에서 주로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는 집단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여가욕구를 만족시키고, 정보를 스스로 찾는 적극적인 형태를 보임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주관적 행복감이 그 외 다른 여가정보출처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친구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주관적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들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인 Dew, Huebner(1994)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준다. 주로 집에서 가족과의 대화를 한다는 집단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은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과 적대감 없이 가정생활이 원만함을 느끼며, 가정의 화목으로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되어 집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TV, 라디오, 잡지, 집안일을 하는 집단과 다르게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관계에서 불화, 갈등과 적대감 없이 가정생활에서 정신적으로 흡족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갖게 되어 여가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유형, 여가정보출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참여집단이 비 참여 집단보다 여가정체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적이며 능동적인 여가시설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대학 캠퍼스 내에 확충되어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여가생활양식의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대학생층 뿐 아닌 여가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청소년이나 미혼자, 시간이나 금전자원이 풍

부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가족과의 대화를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넷째, 시간여유가 많은 반면,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자원은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시하고 여가시설의 확충과 여가프로그램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단지 대학생 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이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여가시간이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여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각자 개인들이 여가활동을 계획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봉화, 김홍석(2000).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참여 및 학교 생활만족도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34(4), 1001-1013.
- 강봉화(2002).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17호 631-642.
- 김태운, 문용(2001). 직장인의 lifestyle과 wellness 및 생활체육 참여간의 인과모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5, 233-246.
- 김동진, 김재운(2001).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여가활동 선호유형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 40호 787-796.
- 김동진(1993). 대학생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문집, 14(1), 55.
- 김동진(1998). 스포츠태도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태(1996). 여가활동참가와 여가태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득(1997). 한국인의 여가와 삶의 질.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집문당.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 출판사.
- 김경배(2002).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여성들의 생활여가 연구. 은행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1997).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인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천외2인(2001). 문화로 보는 관광학. 소화출판.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영우(1995). 사회적 지원망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연지(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1999).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제 31권.1호.
- 박애숙(1995). 노인의 여가자원과 여가프로그램간의 관계.
- 박미석(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5).
- 박문환(1999).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체육참여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박시범(199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레저활동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유진(2002). 여가정체성 현출성에 따라 여가경험이 여가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여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두희, 박미석(1998).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구조 방정식 모형. 소비자학 연구. 9(4), 101-117.
- 임수원(1999). 골프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 스포츠 사회학회 지 13. 55-67.

- 유지영(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6권.1호.
- 오영희(1995). 대학생들의 인지욕구와 여가생활과의 관계. Du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6월호.
- 이동원(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주. 이계운. 정명수. 원유병(2002).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7호. 319-327.
- 이장호(1986). 상당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 윤이중(1996).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원형중(1994). 여가활동참여도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4(2). 90-104.
- 이상구(1998). 생활체육참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길(1992). 사회체육 활동과 생활만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은(1995). 스트레스와 지원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번장. 정영린(1995).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4(3):56.
- 정은선(1997). 성격 및 생애사건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준영(1998). 정체성 논의에 대한 Norbert Elias의 문명화과정론의 사회학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린, 이흥구(1996).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5(3).
- 장윤희(1991).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천은영(2001). 댄스스포츠참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혜련(2002). 대학생의 여가활동 및 여가몰입경험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희(1995). 육구충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최외선, 손현숙(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4호.
- 채환국, 김석기(2003). 가정주부의 정보이용도와 여가자원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과 여가만족도. 한국체육학회지. 42(5). 451-460.
- 허건홍(2001). 대학생들의 여가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광주대학교논문집.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홍석표(1991).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허유정(200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趙炳江(1998).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수원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istotele(1948).The Basic Works of Aristotele, ed.R.McKeon(New York: Random House).
- Bammael, G(1982). Leisure and Human Behavior. Iowa: W.E.Brown Company Publishers.
- Berger,B(1962). The Society of Leisure Some Suggestions,1,Industrial Relations 1.
- Bradburn,N.M.(1969).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mpbell(1976). A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31,117-124.
- Coleman,D(1993). Leisue based social support, Leisure dispositions and health; Journal of Leisure Reserch,25,4,350-361.
- Crawford,D,W.& G.Godbey(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Sciences,9,119-127.
- DeCarlo(1974). T.J. Recreation participation patterns and successful again Journal of Gerontology,19(4),416-422.
- Diener,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542-575.
- Diener,E.(1995). A value based index for measuring national quality of life. Manuscript in preparation.
- Diener,E.,& Fujita,F.(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926-935.
- Dumazedier,J(1967).*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 Erikson, E .H(1968).*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mmons,R.A.(1992).Abstract versus concrete goals: personal striving level, physical il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62,2,292-300.
- Flanagan,J.C(1978).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asm Psychology*.
- Francken,D.A.&W.F.Van Raaij(1981).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B,337-352.
- Grazia.de , S.(1962). *Of Time and Leisure*.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 Grieves,J.(1989). Acquiring a leisure identity: Juvenil jazz bands and the moral universe of "healthy" leisure time. *Leisure Studies*,8,1-9.
- Haggard, L. M & Williams,D.R.(1992). Identity affirmation through leisure activities: leisure symbols of the self. *Journal of leisure Research*,24,1-18.
- Iso-Ahola ,S .E. , Graefe .A. R. & La Verde,D(1989). Perceived competence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risk sports particip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Leisure Research*.21. 32-39.

- Iso-Ahola, S., & R. Mannell (1985).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leisure, in Wade, M.G. (1985).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_\_\_\_\_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Iowa: Wm. C. Brown Co, 164.
- Kaplan, M. (1960).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quiry. New York: John Wiley & Sons.
- Kelly, J.R. (1987). Freedom To B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Kelly, J.R. & Steinkamp, M.W. (1987). Later 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189-200.
- Lawton, M.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1), 86-89.
- Laverie, D.A. (1995). The influences of identity related consumption, appraisals, and emotions on identity salience: a multi-method approach. Doctori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Lutgin, Sidney G. and Stoej, Edward H. ed. (1973). Managing Municipal Leisure Services, Washington, D. C. :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Laron, R. (1979).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Lewis, R.A. & Spanier, G.B. (1979). Theorizing about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 Hill, R. , Mye, I, &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 Free Press.

- Mckechnic, G.E. (1974).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Murphy, J. (1975). *Recreation and Leisure Service* Dubuque, Iowa: Wm. C. Brown.
- McGuire, F.A. (1984).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 6, 313-326.
- Medley, M.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 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Neugarten, B.L., Harvighurst, R.J. and Tobin, S.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 Orthner, D.K. (1975). Patterns of leisure and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Pieper, J. (1963).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New York: Random House.
- Palmore, E.B. (1968). The effects of aging on activating and attitudes. *Gerontologist*, 8. 259-263.
- Peppers, L.G. (1995). Patterns of leisure and adjustment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6, 441-446.
- Ragheb, M.G. & Griffith, C.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 Shamir, B. (1992). Some correlates of leisure identity salience: Three

- exploratory stud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301-323.
- Shin, D.C., & Johnson, D.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the life. *Social Indication Research*, 5, 475-492.
- Schrereyer, R., & Dirver, B.L. (1989). The benefit of leisure. In E.L. Jackson and T.L. Burton (Eds).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 387-419. State College, PA: Venturn Publishing, Inc.
- Stebbins, R.A. (1992). Costs and rewards in barbershop singing, *Leisure Studies*, 11, 123-134.
- Tinsley, H.E.A., & Tinsley, D.J. (1986). A Theory of the attitudes, benefits, and causes of Leisure experience. *Leisure science*, 1-45.
- Wann, D & Branscombe, (1995). Influence of identification with a sport team on objective knowledge and subjective belief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 Research*, 24, 1-34.
- Witt, P.A and G.D. Filis. (1984). The Leisure Diagnostic Battery: Measuring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Society and Leisure*, 7(1), 109-124.

# ABSTRACT

Leisure Ident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Leisure Resource and Leisure Activity Types among  
University students.

Lee Mi Yeo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leisure activity type and leisure resource influence on leisure ident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3 university students who are study in Seoul, Gyeonggi, Jeonbuk in 2004.

The measurements were leisure identity scale used by Park Yu Jin(2002), and P.G.C. morale scale adapted and used by Lawton(1975).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ie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VOVA, Duncan's tes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10.0.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isure identity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religion, pocket money for a month, leisure activity types, something that you

do at home, and leisure barriers.

Second, subjective well-being was affected by subjective social class, leisure information, number of friends, subjective health condition, leisure activity types, and leisure barriers.

Third,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subjective well-being were leisure activity types, leisure information, number of friends,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omething that you do at home.

There was no influence of leisure identity on subjective well-being.

I recommen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able to provide more understanding ab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eisure activity type of university students and could help them to accomplish successful leisure activity.

I also suggest that this data could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the leisure education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부록1>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주관적사회 경제적지위										
종교	*									
	.146									
건강상태										
	-.029	.046								
집에서 주요하는일										
	-.007	.127	.083							
여가방해요인										
	.063	-.086	.051	.028						
여가정보출처										
	-.031	-.111	.098	-.124	.012					
한달용돈	**									
	.214	.084	.047	.107	-.006	-.022				
마을을 터놓고 이야 기할수있는 친구수	**						*			
	.241	.084	.047	.107	-.006	-.022	.146			
여가활동유형		**	**				*			
	.049	.187	.198	-.012	.049	-.084	.152	.065		
여가정체성				***	**		**		*	
	.118	.095	.081	.271	.188	-.047	.207	.139	.166	
주관적행복감	**					**		***	**	
	.188	.029	.124	.110	.041	.188	-.17	.256	.236	-.013

\*P<.05 \*\*p<.01 \*\*\*p<.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중하류층 0, 중상류층 1

종교> 종교없음 0, 종교있음1

건강상태> 매우건강하다 0, 허약보통 1

집에서 주요하는일> 가족과대화 1, 그 외 0

여가방해요인> 건강문제 1. 그 외 0

여가정보출처> 인터넷 1, 그 외 0

여가활동유형> 스포츠 1, 그 외 0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여가자원에 따른 여가유형과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아래 설문지를 차례로 읽어가면서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것 하나만 골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04. 5

성신여자 대학교 가족학 연구실

식사과정 이미연 드림

\* 다음은 여러분들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하거나 간단히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_\_\_ (2) 여 \_\_\_

2.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 세

3. 가족 동거형태는?

(1) 부모님+자녀 \_\_\_

(2) 부모님+조부모+자녀 \_\_\_

(3) 혼자 산다 \_\_\_

(4) 기타 \_\_\_

4. 귀하는 현재 몇학년 이십니까?

(1) 1학년 \_\_\_ (2) 2학년 \_\_\_ (3) 3학년 \_\_\_ (4) 4학년 \_\_\_

5. 거주지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자기집 \_\_\_ (2) 친척집 \_\_\_ (3) 기숙사 \_\_\_ (4) 하숙 \_\_\_ (5) 자  
취 \_\_\_

6. 귀하의 종교는 ?

(1) 기독교 \_\_\_ (2) 불교 \_\_\_ (3) 종교없음 \_\_\_ (4) 기타 \_\_\_

7. 귀하의 전공계열은?

- (1) 인문계열 \_\_\_\_
- (2) 사회 및 경영계열 \_\_\_\_
- (3) 자연 및 의과계열 \_\_\_\_
- (4) 공과 및 농과계열 \_\_\_\_
- (5) 가정 및 생활 계열 \_\_\_\_
- (6) 예체능 계열 \_\_\_\_

8. 귀하가 생각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하류층 \_\_\_\_ (2) 중하류층 \_\_\_\_ (3) 중류층 \_\_\_\_ (4) 중상류층 \_\_\_\_ (5) 상류층 \_\_\_\_

9. 대학소재 지역은?

- (1) 서울 \_\_\_\_ (2)지방 \_\_\_\_

\* 다음은 여러분의 여가자원에 관한 문항입니다.

10. 귀하의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11. 여가활동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십니까?

- (1) TV, 라디오 \_\_\_ (2) 신문, 잡지, 정보지 \_\_\_ (3) 인터넷 \_\_\_  
(4) 가족 \_\_\_  
(5) 친구, 친지 \_\_\_ (6) 공공기관 \_\_\_ (7) 여가시설 \_\_\_

12.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전혀 없다 \_\_\_ (2) 적은편이다 \_\_\_ (3) 보통이다 \_\_\_ (4) 많은 편이다 \_\_\_  
(5) 아주 많다 \_\_\_

13. 자주 만나는 친구는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까?

- (1) 초등학교부터 \_\_\_ (2) 중학교부터 \_\_\_ (3) 고등학교부터 \_\_\_  
(4) 대학교부터 \_\_\_ (5) 여가활동하고부터 \_\_\_

14. 귀하가 인식하는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1) 허약하다 \_\_\_ (2) 약한편하다 \_\_\_ (3) 보통이다 \_\_\_  
(4) 양호하다 \_\_\_ (5) 매우 건강하다 \_\_\_

\* 다음은 귀하의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문항입니다.

15. 귀하가 자주 즐기는 여가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 (1) 스포츠활동(조깅, 에어로빅, 요가, 헬스, 농구, 수영, 스쿼시, 자전거, 낚시 등) \_\_\_

(2) 교양 및 취미활동(드라이브, 노래부르기, 꽃꽂이, 사진촬영, 수공예 등)

—

(3) 관광활동(여행, 유적지답사, 동물원방문, 놀이동산, 등) \_\_\_

(4) 오락 및 사교활동(클럽에서 춤추기, 외식, 음주, 화투, 트럼프, 짬질방, 스포츠관람, 쇼핑, 친구·친지방문, 가족과의대화, 동호회활동) \_\_\_

(5) 감상 및 관람활동(사색, 낮잠, 독서, TV, 음악, 영화, 전자오락 등)

—

16. 집에서 귀하가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1) 낮잠. 아무일도 안한다 \_\_\_

(2) TV. 라디오를 시청한다 \_\_\_

(3) 신문, 잡지를 본다 \_\_\_

(4) 집안일을 돕는다 \_\_\_

(5) 가족과 대화한다 \_\_\_

(6) 컴퓨터. 인터넷을 한다 \_\_\_

(7) 전화통화를 한다 \_\_\_

(8) 기타 \_\_\_

17. 귀하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비용 \_\_\_ (2) 교통 불편 \_\_\_ (3) 시간문제 \_\_\_

(4) 같이 할 사람이 없다 \_\_\_ (5) 건강문제 \_\_\_ (6) 기타 \_\_\_

<여가정체성>

\*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00는 현재 여러분이 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합니다. )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00를 하지 않을 때에도 00이 생각한다.					
19	00를 그만두라는 강요를 받는다면 기분이 상할 것이다.					
20	00는 나에게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1	00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22	00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다.					
23	다른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생각할 때 다른 모습 보다는 00와 연관해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24	00를 계속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25	나는 다른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00를 할 것이다.					
26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라도 00를 계속 할 수 없다면 포기할 것이다.					
27	주위사람들도 내가 00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8	나는 00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29	누가 00에 관해 내게 물으면 기분이 좋다.					
30	나는 내가 00를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31	주위사람들에게 00를 하도록 권한다.					
32	00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왓지 호감이 간다.					
33	00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34	00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35	00를 안하는 사람들은 00의 가치를 잘 모른다.					
36	00말고 다른 여가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					
37	다른 사람들도 00가 멋진 여가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38	일반적으로 00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주관적 행복감>

\* 다음은 여러분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39	나는 향후 1년 사이에 작은 것을 걱정하는 편이다.					
40	나는 잠을 못 이루는 편이다					
41	나는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42	나는 예전보다 회를 내는 횟수가 많다.					
43	나는 항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44	나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건강증이 심하다.					
45	나는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46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					
47	나는 슬픈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48	나는 연령이 높아지면 인생이 점점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49	나는 가족, 친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는다.					
50	나는 슬프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